

Oct 1. 2017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1:00 인도: 김원기 목사

Offering 헌금기도 사회자 Presider

◎ Praise 찬 송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주님)

◎ Prayer 참회기도 다같이 Together

◎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Together

Hymn 찬 송 288장 (통204장)

Prayer 기 도 이화정 장로

Announcement 교회소식 사회자 Presider

Scripture Reading 성경봉독 에베소서 4:25-32

Choir 성가대찬양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Sermon 말 씀 김원기 목사

‘더불어 살자’

◎ Prayer 기 도 다같이 Together

◎ Benediction 축 도 김원기 목사

오후 찬양예배

❖ 주일 오후 1:30

☐ 성숙한 오후 (시즌2) : 제6과 십계명, 정기 카운셀

금요 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

☐ 말씀: 삼손이 죽다 ☐ 본문: 사16:23-31 ☐ 기도: 합심기도

기타 예배 안내

☐ 새벽 기도회 ❖ 월요일 자유기도, 화요일부터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 교육부 예배 ❖ 주일 오전 11:00 / 주일 오후 1:30

구역별 모임 안내

☐ 고구마- 구역장 : 최영애권사 인도 : 성기현장로
☐ 감자 - 구역장 : 김경식장로 인도 : 사라들집사
☐ 무 - 구역장 : 김봉재권사 인도 : 황창원전도사
☐ 배추 - 구역장 : 새가족부 인도 : 김원기목사
☐ 실버 - 구역장 : 정선옥사모 인도 : 정윤두목사

† 선교의 끈을 쥐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1. 2017년 표어 “예수님처럼-말씀대로”(요15:10)

2. 이달에 읽을 성경은 역대 상 입니다.

3. 2017년 9월 행사

1일: 성숙한 오후2. 십계명, 정기 카운셀

8일: 성숙한 오후2. 사도신경, 남녀 선교회 월례회

15일: 성숙한 오후2. 성령님의 은사

22일: 성숙한 오후2. 사랑,

29일: 성숙한 오후2.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교역자 회의, 생일축하

4. 김옥련 권사님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힘써 기도합니다.

6. 병환으로 교회 출입이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성숙한 오후 매주 주일 오후(1:30 pm)

#매주 토요일 커피브레이크(6:00 am)

#토요새벽기도: 장정남권사10월7일, 최은자권사10월14일, 성승록권사10월21일

#2017년 성도의 삶 - 말씀의 부흥과 영적인 성숙을 이룹시다.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다합니다.

- 말씀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합니다.

8. 교우동정 - 이선화권사 병가료중. 이주영사모 모국 방문.

†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 전 안내석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 기도 : 1부- 합심기도 ☐ 2부- 김경식장로
☐ 안내 : 1부- 황창원전도사 ☐ 2부- 황동균집사
☐ 예배 특송 : 성가대찬양 ☐ 찬양예배 기도 : 합심기도

교회를 섬기시는 분

☐ 행정목사 : 이호중 ☐ 교육목사 : Ariel Flores
☐ 전도사 : 황창원 ☐ 시무장로 : 김경식 성기현 조홍진
☐ 음향간사 : 장정관 ☐ 협동장로 : 이화정

헌 금

OFFERING Devotion

십의일조 : \$.00	선교헌금 : \$.00
주일헌금 : \$.00	
감사헌금 : \$.00	EM헌금 : \$.00
자녀헌금 : \$	
지난주일 합계 : \$.00	

갈라디아서 5:16-24 "진짜 열매는 사랑"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인간성의 저급한 면을 만족시키는 자유가 아니다.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을 위한 자유를 의미한다.

더러운 것들(19)

더러운 것 - 이 말은 '불결한 상처의 고름' '손질을 전혀 하지 않은 나무'

한 번도 불순물을 골라내지 않은 물질을 주고 일컫는 말이다. 이 단어의 긍정형은 '카라로스' 라고 하는데 순결을 의미한다. 이 단어는 신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것이라는 의미이다. 즉 더러운 것은 신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우리들을 하나님께로부터 격리시키는 오물들이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8가지를 말하나 처음 나온 사랑을 소유할 때 성령의 열매들은 건강하게 된다.

1. 사랑

아가페다. 무조건 적인 사랑이다. 조건 없이 일단 사랑하는 것이다.

1)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라(6:10)

본서 6장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고 말한다. 여기서 바울은 사랑 나눔의 중요한 원칙을 이야기 한다. ①기회 있는 대로 하라(항상 베풀면서 살라) ②모든 이에게 하라(사람 가리지 말고 누구에게나 베풀어라) ③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라)

내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가족, 친척, 교회지체 등. 이렇게 나와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가까운 곳에서부터 사랑을 베풀라는 것이다. 이것이 순리고 상식이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상식적인 사랑이다. 이 상식을 모를 때 병이 생긴다. 분쟁이 생기고 나눔이 나타난다.

2) 값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라(눅14:12).

사람은 가치를 추구하는 동물이다.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에 시간, 열정, 물질 등을 투자한다. 심지어 사랑도 투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랑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정의인 '사랑은 주고받는 것(give and take)' 라는 말이 이를 잘 보여 준다. 그래서 기왕이면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관계를 맺고자 한다. 하지만 이것이 처세는 될지언정 믿음은 아니고 세속적인 지혜는 될지언정 참 사랑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상반된다.

야고보 사도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 경건(믿음)" 이라(1:27) 고 했고 잠언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귀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19:17)고 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자. 값을 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자. 이렇게 시작한 사랑이 기쁨을 주고 화평을 주고 오래참고 자비와 양선하며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열매들을 맺게 된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요15:10)



담임목사 : 김원기
(Pastor, Wonki Joseph Kim)

www.dongsanoflove.org
(교회) 9440 Balboa Bl, Northridge, CA 91325

☎ 818.518.5108(교회)